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 오늘의 전례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 14,1-12 참조)

아무 사람도 스스로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으로서 당신이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이심을 이 말씀으로 밝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바로 하느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 안에 진리와 생명을 간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말씀은 점점 자라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이태리 아씨시 산타마리아 델리 안젤리 성당 옆문
사진_홍창익 비오 신부

제1독서 사도 6,1-7

제2독서 1베드 2,4-9

복음 요한 14,1-12

입당송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화답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배임표 세례자요한 신부 | 시립희망원 원장

지난 파스카 성삼일을 시작할 무렵에 아주 큰 사건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가 진도 앞 바다에서 침몰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그 배에는 476명이 탑승하였고, 수학여행을 가던 같은 학교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들은 174명이고, 302명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4월 30일 현재).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이고 온 나라가 침통한 표정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아쉬워하는 것은 배의 운항과 안전을 책임진 선장과 선원들의 사망감과 책임의식의 결여였습니다.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할 책임자들이 구조에 대한 사망감과 책임을 가지고 안내하였다면 이렇게 큰 인명사고는 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더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욕심과 잘못으로 어린 학생들을 희생시키고 죽음으로 내몰았으니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새 계명(“서로 사랑하여라.”)을 주신 다음 이제 곧 당신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겠으니 “너희들도 준비하여 따라 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토마스가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 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

으니,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요한 14,6)라고 대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을 뵈고 싶어 하고, 하느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궁극 목표이고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 보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미 그 길을 알려 주셨고, 마지막에는 당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아실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진리인지 아실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모든 진리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 생명의 지도자(인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교회(공동체)를 세우시어 하느님 아버지께 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라는 큰 배의 선장이시고, 사도들과 그의 협력자들은 그 배의 선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가장 잘 아시고, 목적지인 하느님 나라에 가장 안전하게 안내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도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협력자로서 소명과 책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궤물**

124위와 함께하는 전대사의 은총

5월 17일, 순교자 124위 관련 순례지 전대사 선포미사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한국 순교복자 103위가 시성된 지 30년 만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가 마침내 오는 8월 16일 서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주례로 복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이번 시복식은 지난 시성식 때처럼 역대 두 번째로 교황님께서 직접 방한하시어 시복식을 거행하신다는 점에서 한국천주교회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대사 순례지 선포

아울러 새로이 탄생하는 복자들에 대한 공경과 신심을 위하여 관할 교구장이 지정한 순례지를 여럿이 방문하여 기도를 바치면 특별 전대사가 수여됩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복자성당에서 5월 17일 오후 7시 30분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는 ‘순교자 124위 관련 순례지 전대사 선포미사’를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대구 관덕정 순교기념관을 비롯해 복자성당과 경주 진목정 성지를 방문하여 고해성사와 미사영성체를 하고 묵주기도 5단과 주모경 1회, 그리고 8월 15일까지는 교황 한국방문과 시복식을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치면 전대사를 받게 됩니다.

• 관덕정 순교기념관

대구 관덕정순교기념관은 경상감영의 처형장으로 많은 교우들이 참수된 대표적인 순교 성지입니다. 대구대교구의 제2주보이신 이윤일 요한 성인을 비롯해 우리 교구 20위 시복자 중 17위가 순교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 복자성당

또한 병인박해 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1970년에 순교자 현양성당으로 봉헌된 복자성당은 1973년 감천리 묘지로부터 이장되어 온 허인백 야고보, 이양응 베드로, 김중륜 루카 세 분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 진목정

경주 진목정 성지는 이 세 분의 순교자가 병인박해 때 단석산 범굴에 피신했다가 1868년 체포되어 장대벌에서 순교하신 후 최초로 모셔진 곳으로 세 분 순교자의 시신이 묻혀 있던 합장묘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목정 성지에서는 5월 18일부터 7월말까지 순교자 영성체험을 위한 일일 순교영성피정, 일일 성지순례, 일일 성지개발 참여 프로그램, 개별순례자 및 단체순례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시행됩니다.

관덕정과 복자성당, 그리고 진목정을 방문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종 124위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실천한 신앙의 면모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www.maum.Jesus

이수환 바오로미끼 신부 | 월성본당 보좌

‘넌 코카콜라 난 환타’ / ‘연두빛 고운 새싹’

‘아침은 희망이다.’ / ‘어떡하나’

‘딱딱한 겹질 속에서...’ / ‘보고싶당’

이 말들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라 불리는 한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의 프로필(profile:인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적힌 것입니다. 오늘날 프로필은 인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뿐만 아니라 거기엔 마음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할 때면 직접 만나서 물어보기보다 프로필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궁금해 자녀의 프로필을 들여다보는 부모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이 궁금해 연인의 프로필을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발전해 상대방과 대화하기 전에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긴 하나 문제는 프로필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묻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사람이 아닌 SNS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SNS에 마음을 표현하는 이유가 마음을 털어 놓아도 쉽게 상처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만 하는 SNS가 편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그 이유를 찾자면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의 바탕에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 무언가를 나누는 그 따뜻함이 그림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나누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 마음을 듣는 그 따뜻함이 그림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면 SNS가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사람을 더 많이 찾을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는 따뜻함을 우리는 어디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만지기를 꺼리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 주시는 모습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모습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도구는 많지만 사람들 사이에 마음을 나누는 경우가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서 예수님의 따뜻함을 지닌다는 것은 또 하나의 SNS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겠지요? **필문**



내 손을 잡아



어린 아들과 엄마가 강위의 높은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약간의 두려움을 느껴 아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강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엄마 손을 꼭 잡아.”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냐, 엄마. 엄마가 내 손을 잡아 줘.”

“뭐? 아니 그게 뭐가 다른 거지?” 엄마가 궁금해 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엄마 손을 잡았을 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엄마 손을 놓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엄마가 내 손을 잡으면, 나는 엄마가 내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

어린 아들이 말한 대로 손잡은 그 사실 자체보다 서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성모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먼저 잡아주십시오. 잡은 사람이 놓기 더 어려운 법이니까요. **필요**

금주의 성인

5월 18일	성 베난시오(소년, 순교자, 카메리노, 257년), 성 에리코(왕, 순교자, 스웨덴, 1160년) 성녀 엘자바(과부, 수녀, 샤프츠베리, 971년), 성 요한 1세(교황, 순교자, 526년) 성녀 올리타(동정순교자, 안키라, 304년), 성 펠릭스(수사, 칸탈리체, 1515~1587년)
5월 19일	성 둔스타노(대주교, 수도승, 캔터베리, 910~988년), 복자 알퀴노(수도원장, 요크, 735~804년) 성녀 푸텐시아나(동정순교자, 로마, 2세기), 성녀 치리아카(동정순교자, 니코메디아, 307년) 성 이보 헬로리(신부, 증거자, 법률가, 케르마르틴, 1253~1303년) 성 첼레스티노 5세(교황, 1210~1296년경)
5월 20일	복녀 골롬바(동정녀, 3회원, 리에티, 1467~1501년), 성녀 바실라(동정순교자, 로마, 304년경) 성 바우델리오(순교자, 님, 2~3세기), 성 베르나르디노(신학자, 설교가, 시에나, 1380~1444년)
5월 21일	성 고드릭(은수자, 핀칼레, 1065~1170년), 성녀 이스베르가(수녀, 에르, 800년경) 성 크리스피노(수사, 비테르보, 1688~1750년), 성 테오발도(대주교, 비엔, 1001년)
5월 22일	성 로마노(수도원장, 수비아코, 1380~1457년), 성녀 리타(과부, 수녀, 카시아, 1380~1457년) 성 에밀리오(순교자, 아프리카, 250년), 성녀 올리아(동정순교자, 코르시카, 5세기경) 성녀 후밀리타(과부, 수녀, 파엔차, 1226~1310년), 성 카스토(순교자, 아프리카, 250년) 성녀 퀴테리아(동정순교자, 5세기경)
5월 23일	성 테시테리오(주교, 순교자, 비엔, 608년경), 성녀 에우프로시나(은수자, 폴로츠크, 1173년) 성 요한데 로시(신부, 1698~1764년), 성 이보(주교, 샤프트르, 1040~1115년) 성 레오니트(주교, 순교자, 로스토프, 1077년경)
5월 24일	성 도나시아노(순교자, 낭트, 289년), 성 로가시아노(순교자, 낭트, 289년) 성 빈첸시오(신부, 레랑스, 445년), 성녀 수산나(순교자, 2세기) 성녀 요안나(신약인물, 예수의 제자, 부인, 1세기경)



2014년 3월 20일 현재

교구 100주년 기념 주교좌 범어대성당 공사 순항!

지난해 3월 31일 예수부활대축일에 첫 삽을 뜬 교구 100주년 기념 주교좌 범어대성당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터파기, 바닥매설 작업 등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지하층과 소성전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곧 대성당 바닥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8월 말 경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외부 골조공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내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며 2016년 부활대축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교구장 동정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5월 11일(일) 오후 8시 성모당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셨다.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5월 19일(월) 10:30 범어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19일(월) 11:00 죽도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5월 19일(월) 11:00 수성성당	유아·초·중등교원과 시도교육청 신우회 성모의 밤 미사	5월 19일(월) 19:30 성모당

성소 | 피정

도미니코회 성소 모임

일시: 매월 넷째 주일 10:00~15:00
장소: 서울 성도미니코수도원
문의: 조성하 신부, (010)3012-2616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5.24(토) 14:00
장소: 예수회 관구본부
주제: 오늘날의 예수회
문의: (010)9981-1208
www.facebook.com/becomingJesuits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 주말

320차: 6.6(금)~8(일)
321차: 7.11(금)~13(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대구 ME, 983-0521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현시, 미사, 안수)

일시: 5.21(수) 13:00~16:00
6.18(수) 13:00~16:0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샬트르성바로대구수녀원 봄 피정

1차: 5.24(토)~25(일) 16:00
2차: 5.31(토)~6.1(일) 16:00

주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대상: 20~35세 미혼 여성
문의: (010)3803-8973

교육 | 모집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성지순례자 모집

일정: 6.19(목)~7.2(수), 14일간
신청마감: 5.31(토)까지
지도신부: 박성대 요한(2대리구 주교대리)
주관: 2대리구 렉시오디비나 성서모임
문의: 2대리구, 743-7010

예수성심 교육관 일정

일시: 5.24~25 / 6.7~8 모녀: 소통과 사랑
일시: 6.22(일) 청년: 남녀청년해피엄 pm.2~5
문의: (010)9056-9005

성모기사회 (7080 정기 모임)

미사: 5.25(일) 14:00
장소: 끈벚말프란치스코수도원 2층 경당
문의: (070)4266-0047

바로로말 영화치료-행복한 영화읽기

시간: 6.2(매주 월) 13:30
장소: 공평동 시내 바로로말 서원
내용: 힐링무비, 힐링토크, 소통과 공감
회비: 10주 10만 원(문자로 신청받음)
문의: 에반젤리나 수녀, (010)2658-5185

중국어(中國語) 성경, 성가교육 및 회원모집

중국어 성경: 매주(토) 16:20
중국어 성가: 월례회미사 30분 전
대상: 중국어 초급정도의 모든 신자
문의: 한중(韓中)천주교 친선협회
계산문화관, (010)2662-1560

16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1차: 6.25(수), 8, 12주
2차: 8.24(일),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23회 청소년 필리핀영어연수(4주)모집

제44차 마신부님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초·중·고 : 7.25(금)~8.15(금)
유럽 학생들과 함께 연수
대일반 : 6.23(월)~8.1(금)
주관: 마신부님(아일랜드골롬반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인천교구 실버타운 <마리스텔라>

총 264세대 마리스텔라 입주자 모집
1,000병상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
원 운영, 매일미사, 다양한 신앙프
로그램, 각종 부대시설 운영
문의: (032)280-1500
<http://www.marisstella.or.kr>

2014 영국어학연수 & 유럽문화탐방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출발일: 07월 20일(21박 22일)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지여행 프렐레(유스티노)

언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울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계진, 암경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로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회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첼마) 박요안나
상인협 홀출력수 맞은편 / 범어동 경신교 입구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졸업/성장(식육부진·수면장애)/아토피/야뇨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사
동국대한의학과 외레교수 **김성철(비오)**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메디타워 4F

유방·갑상선 전문 여의사
마리아유외과
Maria Breast Clinic
대표원장 김 경 경(안젤라)
반월당역 22번 출구 농협 3층
(주차 가능합니다)
예약전화 **053)252-6875**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반역기(배오로) **011-514-3855**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한영한마음이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탁(라파엘)
365일연중무휴진료
*평 일: 오전 9시~밤 12시 까지
*토일·공휴일: 오전 9시~밤 9시 까지
☎ 260-7777 ☎ 260-7575
서부정심장관심장정(구.물성군청지리)

시복대상자 후손을 찾습니다

오는 2014년 8월 16일(토) 시복될 예정인 대구지역의 순교자 20위의 후손을 찾습니다. 신원이 파악된 순교자 후손들은 시복식에 순교자 후손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각 본당 사무실,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행사 | 모임

만촌성당 희망나눔 바자회

일시: 5.17(토) 12:00~22:00
5.18(일) 10:00~22:00
장소: 만촌성당, 754-2288
주제: 새로운 본당 30년을 위한 희망나눔 바자회

만촌동성당 음악회(엄마 생각 하늘 생각)

일시: 5.23(금) 19:30, 만촌1동성당

성모님께 봉헌하는 바이올린 독주회

일시: 5.24(토) 18:00
장소: 주교좌 계산성당
주제: Ave Maria(아베 마리아)
연주: 이예찬(스콜라스티카)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관현악과)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5.19(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음악가들과 함께 하는 한티순교성지 성모의 밤

일시: 5.24(토) 19:30
장소: 한티순교성지 성모동산

칠곡, 평화의 누릿길(예술과 함께하는 토요일: 작은음악회 등)

출발: 6.21(토) 9:00, 계산성당 / 2만 원
장소: 왜관수도원, 가실성당, 구상문화관 등
참조: www.dgpbcc.co.kr(버스이동)
문의: 대구평화방송, 251-2610, 21

교육 | 모집

티스타 성교육지도자과정 워크숍

일시: 6.14(토), 15(일), 21(토), 22(일)
9:00~17:00 / 총 4회
장소: 교구청 대화합실
대상: 청소년성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
문의: (010)9544-1838 / 250-3037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지성인을 위한 토요일양육강

일시: 5.24(토) 10:00~12: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 5천 원
주제: 성모마리아 공경심과 대구의 여인들
강사: 김정숙(테레사) 교수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관덕정 주관 6월 성지순례

일자: 6.15(일), 수원교구 미리내성지

신청: 5.21(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 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우쿨렐레, POP, 초크아트, 톨페인팅, 백세건강강좌(무료)
문의: 476-6211

성요셉요양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병원미사(월, 화, 목, 금 10:30)를 위한 전례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행정부, 615-4871

채용 | 안내

상인성당 사무원 채용

마감: 5.31(토)
자격: 미혼 여성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문의: 639-1900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이용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등
이용방법: 전화, 내방, 사이버 상담
상담전화: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가톨릭 류마티스·관절센터」 외래 진료 시작

5.19(월)부터 3개 진료과(류마티스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한층 더 새로워진 진료를 시작합니다.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대대가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2014. 5. 15(목) 14시~
개교100주년 기념미사 & 기념식
대구가톨릭대학교 100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치매 조기진단
• MRI, CT, 위/대장 내시경
• 건강보험검진, 공무원종합검진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 출구 (출플러스 내당역 맞은편)

해아림한의원
소아클리닉 - 틱, ADHD, 아노
마음클리닉 - 공황, 불안, 불면
원장 김 대 역(안드레아)
예약 : 053)751-0071 2호선 수성구청역 4번출구 승원학원옆

비염·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대구수성점 **코비한의원**
대표원장 이 판 제(루까)
☎ 053-753-9795 수성구청역 4번 출구 앞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십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과 전문의 / 원장 이준석(이냐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